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1. 경안천 생태 이야기



정 윤 준 |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 사무국장

경안천은 용인시 처인구 호동에 위치한 문수봉(404m)의 문수
샘에서 발원하여 용인시 도심을 지나면서 19개 지류 하천과 합류
하여 광주시를 거쳐 2,4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으로 쓰이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경안천은 총길이 49.5km이며 이중 용인지역의 경안천은 처인
구 호동에서 시작되어 광주시와 용인시 경계지점까지 25.2km이
며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안천의 유역면적은 598km²이
며, 문수봉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일직선 형태로 흘러간다. 연
강수량은 1,300mm로 풍부한 편이나 물살이 빨라 보가 많이 설치
되어 있다.



경안천은 대동여지도에서는 우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소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용인군청이 위치한 곳이 김량장리이며 이곳을 관류하는 하천이라고 김량천(金良川)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용인지역의 경안천을 처인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천의 지형을 살펴보면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단층 선곡을 따라 일직선상의 흐름으로 구릉성 산지가 하천 주변으로 발달해 있고 직강 하천으로 하천상류는 하상경사가 심하고, 도심을 지나면서 하상경사는 완만해지고 하류에서 평지하천을 이룬다. 하상은 주로 모래, 자갈 및 큰 자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지점별로 보면 경안천의 첫 물길인 시작되는 문수샘에서 계곡을 타고 돌아 나가는 해실마을 구간을 살펴볼 수 있다.

전나무 숲이 우거진 산을 오르다 보면 문수봉 돌 틈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모여 든 물은 계곡을 따라 흐르고, 숲의 팔부능선을 지나면서 물줄기는 비로써 청아한 물소리에 마음을 씻을 수 있는 투명한 1급수로 태어난다.

문수산지(절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능선을 따라 가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로 보이는 마애보살상이 큰 바위에 새겨져 있다. 경안천의 발원지는 석유공사 부근으로, 옛날에는 우물도 있고 마을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기도 하였다고 하며 지금의 경안천 발원지가 되기까지 세 번의 변경도 있었다.

호장근과 앵초가 군락을 이루고, 특히 특산종인 뼈국나리가 자생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최상류 1급수의 지표종인 도롱뇽, 플라나리아가 살고 있는 문수샘의 첫 물방울을 모아 한 모금 시원하게 마셔 보자.

해곡과 용해곡의 두 물이 만나는 용해곡천은 운학천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하며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자연형태로 보존되고 있다. 자갈들이 투명하게 비치는 깨끗한 개울물에 물놀이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숲에서 드리운 나뭇가지는 물길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으며, 1급수 수질에서나 살 수

있는 버들치의 향연이 나래를 편다.

구름 속에서 학이 노닐었던 운학천이 밤야산에서 정기를 만나고, 안개로 덮인 이곳에서 새들이 노니는 모습은 구름 속에 학의 모습으로 보여 운학마을이 되었으리라.

보가 설치된 옆에 어도를 새로이 조성해 물고기 이동이 가능하고 하천둑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되어 푸른 숲과 맑은 물내음을 맡으며 호젓한 산책을 즐기는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상류에는 길업습지가 잘 조성되어 자연적인 모습으로 백로과의 새들과 물총새가 많이 서식하며, 논습지와 산이 이어져 있어 황로가 먹이 활동을 하다가 초록의 숲에서 노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정겨운 곳이다.

이동마을과 함박산의 물길에 더해지는 남리대교를 지나 도심으로 들어오는 경안천 중류 구간은 하천 주변에 고수부지가 발달되어 있어 도심 속의 많은 시민들이 쉼터로 이용되는 생태하천으로 조성되어 있다. 물과 접한 호안에는 나무방틀이 설치되고 원예용 꽃을 심어 예쁘게 자리하고 있으며,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 꽃이 잘 보전되어 우리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자연형 생태하천 공사구간을 지나 새벽안개 피어나고 파란 하늘을 물에 담은 배머루마을과 삼계교 하류지점에는 물가식물이 잘 자라고 있고, 자연치유를 잘 해나가는 금어생태습지를 지나 흙 길을 따라 내려오면 삼계교 아래에서 자전거 도로와 생태학습장 그리고 산책 데크를 만난다. 이곳을 걷다 보면 할미새의 맑은 울음소리와 물고기를 총알처럼 낚아채는 놀라운 물총새의 사냥습씨도 만날 수 있다.

수량이 풍부한 하류엔 겨울철새들이 다양하게 찾아오는 여유로운 한낫을 즐기기도 한다.

경안천과 함께 친구 되는 빈경수보(도사마을)에는 자전거 도로와 원예종이 주로 식재되어 우리 꽃을 만나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지점에 파라미, 붕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유해물고기인 큰입배스의 서식이 우려되는 구간이기도 하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바둑돌 징검다리에서 추억을 만들기 좋은 곳이며, 자전거를 타고 하천변에 푸르게 펼쳐진 수호와 꽃길을 따라 다양한 꽃들과 눈맞춤하며 운동할 수 있는 구간

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초록의 뚝방길에서 만나는 경안천(초부리)에는 풀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생물들의 초록공간이 물줄기를 따라 흐르며, 수호군락이 형성되고, 모래톱이 발달한 S자 형태를 띠고, 물가 식물들이 그림처럼 담겨져 있는 모습은 평온한 자연의 힘이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 산책길로는 안성맞춤이다.

약천 남구만 선생이 권농가를 지은 곳이며 물과 산과 새가 하나 되는 파담보(비아수보)는 구만이산 모퉁이를 돌아서면 늦가을 단풍이 드리운 비아수에서 배를 띄우고 비파를 연주하며 풍류를 즐겼을 약천 선생의 모습을 그리며 소나무에 올라앉은 백로의 모습은 용인 8경 중 일곱 번째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다. 예쁜 색을 가진 납지리와 고유 어종인 왜매치, 참몰개, 긴몰개 등을 볼 수 있고, 줄곳, 낙지다리 등 큰잎 유충초로 물역새가 가을하천을 물들이는 곳이며 자연적인 모습이 잘 유지되고 있어 보전 가치가 있는 구간이다.

오랜 세월을 모현의 농경지에 유용한 물을 대어주던 월촌교 하류의 경안천은 하천의 모습이 안정적이고 자연적인 구간으로 수변식물이 잘 발달한 자연적인 여건으로 돌고기, 왜매치 같은 토종물고기가 관찰되는 곳으로 경안천의 우점종이다. 혼인색이 아름다운 피라미가 지느러미를 흔들며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의 토종물고기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더 가지게 되는 곳이다.

용인시와 광주시 물길경계인 (경안천보) 매산보에서 상류방향인 용인시 방향은 지방하천이며 하류방향인 광주시 방향은 국가하천인 이곳은 모현의 왕산교를 지나며 용인의 많은 물길들이 모여 안정되고 드넓은 경안천을 만들고 있다. 상류에서 흘러 들어온 모래구간에는 버드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물가를 찾아오는 많은 동물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며, 여울 역할을 하는 보는 산소를 풍부히 만들어 물고기들이 모여 드는 물결 위에 멍떴음을 기다리는 새들의 인내를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새들의 낙원이 되어가는 것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가는 경안천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용인의 물길. 우리의 마실 물.

경안천.

함께 사는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지방의제 21

『지방의제 21』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동으로서 지방차원에서 『의제 21』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이란 「의제 21」의 제28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것을 『지방의제 21』이라고 한다. 즉 『의제 21』을 지방차원에서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의제 21』입니다. 『지방의제 21』은 세계차원의 의제 21, 국가차원의 국가의제 21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나아가 더 세분화되어 『가정의제』, 이웃 → 『마을의제』, 『기업의제』, 어린이 → 『청소년 의제』 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 말부터 각 지역에서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추진 기구는 16개 광역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용인에서는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가 2000년에 설립되어 2003년에 의제 지표를 작성하여 선포식을 갖고 용인시조례(제702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3. 「용인의제 21」 주요사업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인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상임의장 최원호)는 용인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녹색성장 국가 패러다임에 부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참여형 시민실천 운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나무 이야기”, 2008년 “용인 풀꽃 이야기”, 2009년 “용인 곤충 이야기”, 2010년 “용인 새 이야기”, 2011년에는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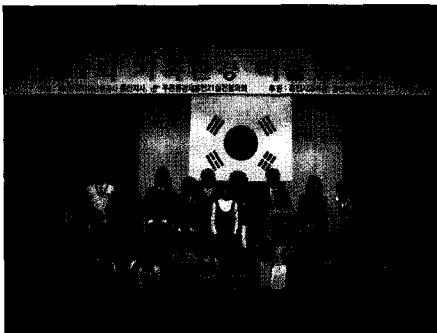
인 경안천 이야기”로 이어지는 “용인 생태도감” 제작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경안천 수질보전사업으로 “청소년 경안천 대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경안천치키키운동본부」와 공동으로 15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여 청소년에게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었다.

“한강유역 생태탐방”, “경안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꽃 모종을 무료로 보급하는 “아름다운 용인 만들기 사업”, “청소년 쫘나부 환경교실”, “녹색은 생활이다”, “미술 글짓기 공모전”, “장애인·다문화 가정생태체험” 외 2010년 “그린 스타트 전국대회”에서 환경부장관 표창(금상)을 수상한 “용인 시 어린이 기후학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에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는 지방의제21 이념에 따라 의제 지표를 실천하는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을 시민사회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다. 🌱



〈그림 1〉 제7회 용인시 가족환경미술공모전 시상식
“녹색은 생활이다.”



〈그림 2〉 제3회 청소년 경안천 대탐사
“경안천 물길따라”



〈그림 3〉 제3회 청소년경안천대탐사
“경안천 발원지를 찾아서”



〈그림 4〉 그린리더양성과정 워크샵
“통영 언대도 에코아일랜드를 찾아서”



〈그림 5〉 어린이 기후학교-기후캠프
“생명의 숲 체험”



〈그림 6〉 생태도감시리즈 4
“용인새이야기” 경안천 새탐조